



화인코리아 근로자들이 지난 18일 밤 삼계탕용 닭에 대추와 쌀 등을 넣고 있다. 화인코리아는 1월 44만달러를 비롯, 올해 680만달러의 주문을 받아 직원들이 아간 작업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한 채 납품기일 맞추기에 매달려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매일 야근해도 콧노래 나와요”

일요일인 지난 18일 밤 11시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에 자리한 방동영계·냉동삼계탕·오리고기 가공업체 ‘화인코리아’ 철축 같은 어둠 속에 이 공장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공장에 들어서자 하얀 위생복을 입은 50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뿜어내는 열기가 후끈 다가왔다. 이제 막 잡은 닭을 세척해 손질하고, 인삼·대추·밤·쌀 등을 몸통에 넣어 스팀으로 찐 뒤 포장하는 삼계탕 만들기가 한창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대부분의 기업이 감산·휴무·실업 공포에 떨고 있는데, 화인코리아는 수출물량이 폭주해 휴일 밤에도 공장을 돌릴 정도로 부산했다.

밤이 깊어 가는데도 공장 이곳저곳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온다. 포장코너의 김순임(여·55·광주시)씨는 “몸은 고단하지만 너무 행복하다”며 “주변에선 불황으로 직장을 잃

불황 속 24시간 풀가동 나주 화인코리아

‘AI 부도’ 이기듯 전직원 한마음 해외 판로 개척 수출 물량 폭주

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밝았으로 일할 수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화인코리아가 항상 잘 나갔던 것은 아니다. 화인코리아는 지난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남도를 휩쓸면서 수요가 급감해 부도를 내야만 했다. 다행히 2005년 화의가 받아들여져 위기를 넘기는가 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가을 또다시 AI 발생으로 재기불능 상태까지 갔다. 주수입원인 수출이 아예 중단된 것이다.

그래도 화인코리아 350여 임직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나원주

(62) 대표는 직접 홍콩과 대만, 일본을 수시로 드나들며 수출루트를 개척했다. 직원들은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매달렸다.

마침내 2007년 260만달러, 2008년 270만달러로 수출물량이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본과 대만 등에서 수출 주문이 늘면서 올 1월 44만달러 등 현재까지 모두 680만달러 상당의 수출물량을 확보했다.

화인코리아는 쏟아지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지난 연말부터 직원들이 2교대로 24시간 풀가동을 하

면서 하루 ‘즉석 삼계탕’ 1만2천봉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설 연휴도 없이 공장을 돌려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직 회사가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 금융권 부채 상환, 시설 확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천안과 여주 등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시설자금 중 12억원이 아직 미결제 남아있다. 대출기한이 연장돼야 상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채권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서두르는 눈치여서 백방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 주간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상당액을 투입해야 한다.

화인코리아 나원주 대표는 “불황에도 고용 유지와 농가소득 제고,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나주시나 전남도, 농림부가 나서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입주민 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 조선 협력업체 금융지원 강화

광주시·전남도, 기업 구조조정 긴급 회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C&중공업과 대주건설 등 광주, 전남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긴급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지원단·워크아웃 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21일 지역 건설업체 구조조정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대주건설과 삼능건설의 협력업체, 입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관련기사 3·9면)

시는 대주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이 전체 세대에 대해 계약을 맺고 있어 대주건설이 청산될 경우에도 분양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납입금 환급이 가능해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입주민들의 재산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주택보증회사, 5개 자치구 등과 긴밀하게 대책을 협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된 삼능건설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사업을 포기할 경우 협약을 근거해 손실처리 후 협약을 해지키로 했다.

또 워크아웃 대상이 된 경남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수완지구 집단에너지 사업과 관련, 6개 협력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1대주주(70%)인 경남기업의 자금난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회사의 회생을 돕되 자금력이 있는 제3자가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전남도는 C&중공업의 경우 앞으

로 2개월 이내에 구조조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인력 재배치와 현장부지 활용,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 물량의 후속처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 금융지원 ▲수주물량 처리 ▲고용인력 재배치 ▲대한조선 지원 강화 ▲사업전환 유도 등 5가지 주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대주건설 측과 아파트 입주자·임대계약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공 중인 분양아파트 건설이나 임대아파트 보증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 지역 기업들의 구조조정까지 겹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해 이번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산강 살리기 1조5천억 투입

익산국토청, 자원 신속 집행키로

영산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2011년까지 모두 1조 5천4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재원계획이 확정돼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게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돈수·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나주시나 전남도, 농림부가 나서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토관리청은 올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391억원을 들여 생태하천 조성(120km), 제방보강(101km), 자전거 도로(212km) 등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단계별로 준공 시점인 2011년까지 저류지 확보, 하도정비, 홍수 조절지 조성 등에 8천934억원, 저수지 보강, 배수갑문 증설 등에 6천

546억원을 투입한다.

또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수~순천 등 8개 도로 개설사업에 올해 1천388억원을 투입하고 울산~우두, 화양~적금 등 3개 도로 개설사업에 신규 발주한다.

이와 관련, 국토관리청은 정부의

65% 이상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맞춰 재원을 신속하게 투입해 고용창출·생산업발 효과가 지역 경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관리청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올해 모두 75건(사업비 8천784억원)의 신규 공사를 발주하는 등 호남권 사업을 위해 1조5천523억원을 투입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50년 전통의 명문대학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공항공정비장 무료이용

국립 최대의 연륙도를 주는 광주MBC 문화탐방 상합니다 www.kmbc.or.kr

"가족의 띠까지 상품과 처분이 다릅니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중국東方航空 광주MBC 문화탐방 광주MBC 062-226-6070